

지역 매 아 리



김제시-BGF리테일

벽골제 유색벼 식재 행사 참여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4일 BGF리테일(대표이사 박재구)과 벽골제에 유색벼 모종을 심으며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를 위한 대지아트 조성에 나섰다.

이날 유색벼 식재행사에는 김제시 글로벌축제공민지원센터, BGF리테일 조성욱 간판식품팀장, 도시락 생산업체 BGF푸드 안태모 센터장, (주)대상 파워 블로거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지난 3월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의 행사는 농업이 기술을 만나 예술로 승화되는 대지아트의 첫 발걸음으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벼의 색깔의 변화를 보여주며 지역 명물이자 축제에서 가장 인기있는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BGF리테일은 국내 최대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로 100% 신동진미만 고집하여 갈수록 소비량이 줄어드는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과 상생하고 사회공헌을 확대해 가는데 앞장서는 기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최고의 지평선쌀 생산 총력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는 올해 고품질 지평선쌀 생산을 위해 지평선쌀 계약재배 농가 1120명과 1436ha 면적에 대하여 출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지평선쌀 재배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육묘 및 물관리 등 재배기술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량종자 공급으로 고품질 지평선쌀 생산을 위한 원료벼를 확보하고자 5381포의 보급종 및 재종포종자 공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우분퇴비를 활용한 친환경순환농법의 지평선쌀을 육성하여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평선쌀을 생산하고자 우분퇴비 사용에 따른 품질향상 확인을 위해 4개소, 12개 실증시험포장을 운영하고 있다.

실증시험포장은 우분퇴비 시비에 따른 품질 비교평가를 위해 각 필지별로 밀거름을 우분퇴비 시비, 우분퇴비 및 추비 시비, 화학비료 시비로 관리 중에 있으며, 기타 물관리 및 병해충관리는 동일하게 시행하여 운영중에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일자리 정책 10년 연속 수상

완주군,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서공시제 부문 '특별상',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 수상

완주군의 일자리 정책이 10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완주군은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특별상'과 우수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제1회 전국 일자리종합대책 경진대회를 열고 일자리 정책을 평가해온 이래 연속 10년째 수상이다.

전국 지방자치 일자리 대상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자리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실적'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각각 평가해 시상한다.

완주군은 '2018년 완주군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과 '완주군 로컬 잡 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공시제 부문과 우수사업 부문에서 모두 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 8000만원과 2020년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우선

권을 따냈다. 지난해 완주군은 ▲로컬 잡센터 운영 ▲나라사랑 청년 ▲청년키움식당 ▲장년 JUMP 프로젝트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 서비스에 대한 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의 취·창업을 통한 정착을 유도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지역 내 자동차 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상용차 보급을 통한 신산업 전망을 제시하는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

특히, 로컬 잡 센터 운영의 경우 읍면별 이장단, 부녀회장단 등 주민 대표 네트워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구인구직 발굴로 완주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구인·구직 수요 매칭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제지평선산업단지 PF차입금 전액 상환

김제시, 165억원 시 분양수입금 확보 등

공동주택용지 분양 및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추진

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의 PF차입금(대출금) 1600억원을 2019년 6월 4일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지평선산업단은 김제시(15억)와 전북개발공사(15억), (주)한양건설(120억)이 공동출자해 2008년 4월 지앤아이(주)를 설립해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 공공시설용지 등 약 298㎡(90만평)를 완공해 현재 83개 업체가 입주(52개 가동)하여 산업용지 분양률이 82.2%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 불황속에서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지역 경제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비 3천억원 중 2010년 8월 지앤아이(주)와 (주)한국투자증권이 토지보상비 1000억 조달을 위한 PF대출약정을 김제시의 보증채무부담 승인하에 체결했으며 2012년 12월 공사비로 600억원을 추가 대출하면서 신용도가 높은 김제시가 미분

양용지매입확약으로 대출 방식을 변경하면서 금리를 5.78%에서 4.3%로 인하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해 왔으나 PF대출 상환금 부족시 미분양용지에 대한 김제시 매입 의무가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2017년도 6월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분양용지 일부(25만㎡)를 조기 매입, 8억원 상당의 이자 절감분에 대한 산업용지를 추가 확보했으며, 예산 낭비라는 우려와는 달리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주)이티엔지 니어링이 입주하고 향후 제2·제3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용지 확보라는 강점이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여러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금년 안에 90%의 분양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에도 분예산 및 추경예산에 367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26만6332㎡를 매입, PF대출금을 1년 조기상환하여 지앤아이(주)의 금융비용과 운영비 약 15억을 절감하였고 이는 법인 청산후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시에서 매입한 산업용지중 약 4만2천평이 분양되어165억원의 시 분양수입금을 확보했다.

김제시는 자본금 15억을 출자해 3000여규모의 90만평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 패푸드업체인 로얄캐닌, 국내최대 육가공업체인 도드람양돈협동조합, (주)일강, (주)대승 등 유수의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으며 양질의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확대와 더불어 1600여명의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김제시는 산업단지조성시 약정한 채무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만큼 법인 청산절차 준비를 시작하고 공동주택용지 분양 및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완주미디어센터서 '아시프' 만난다

오는 12일부터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상영전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전 '좋았다니, 다시 한 번'을 완주미디어센터에서 만난다.

4월 완주미디어센터는 오는 12일, 19일,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순회상영전(ASIF 아시프)을 연다고 밝혔다.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올해 17회를 맞는 국내 최초의 국제경쟁단편영화제로 기내 상영을 통해 단편영화 배급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 세계 최초의 기내영화제다.

이번 상영전에서는 16회 경쟁부문 수상작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화제작 15편을 만날 수 있다.

상영전은 총 3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12일은 '아시프 화제작 전' 섹션으로 프랑스 애니메이션 <노

그래비티> 등 5편을 상영한다. 상영시간은 총 81분에 15세 이상 관람가다.

19일에는 '인생은 단편이다(Life Is Short!)' 섹션은 <베어위드미> 등 5편을 상영한다. 역시 총 81분, 15세 이상 관람가.

26일의 '발칙한 상상력 전'에서는 <칼같이>를 포함한 5편으로 구성됐고 총 73분에 18세 이상 관람가다.

김주영 완주미디어센터장은 "지난해 상영된 아시프 화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짧지만 재기 발랄하고 매력적인 단편영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완주미디어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mediace>)에서 상영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행안부서 소셜굿즈 발표 '주목'

박성일 완주군수가 행정안전부 초청으로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소셜굿즈 우수사례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4일 박 군수는 행안부 지방재정전략 회의에 참석, 지역경제 활력 관련 우수사례 발표에서 완주군 소셜굿즈 2025플랜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 행안부장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박원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의 큰 자산인 300여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이들 조직들로 하여금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하는 비전을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완주군의 소셜굿즈는 문재인 정부가 고용불안, 양극화, 고령화 등의 방안으로 제시한 사회적경제와 맞닿아 있어 정부 부처 인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완주군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소셜굿즈 2025 플랜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 육성에 착수하면서 공공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참여시켜 일자리창출, 돌봄, 장애인 복지, 문화, 상품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이끌면서 지난 3월에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경쟁과 효율이 아닌, 호혜와 신뢰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유진우 김제시의원,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 시비부담금 경감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 유진우 안전개발위원장은 지난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6월중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시 집행부에 대해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와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처리한 안전 중 환경과 소관의 불법 폐기물 처리 예산확보 관련 의견 교환 시 유진우위

원장은 "김제시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 놓여 있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전액 시비로 편성할 뻔한 사업을 국도비 3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시비부담을 대폭 줄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집행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